

기술 강국을 주도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TIPA)가 함께 하겠습니다!



이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사진 2매

보 도 자 료

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

- 문의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책연구실 이훈배 실장(044-390-0430), 이보형 선임연구원 (0431)
- 배포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홍보전략팀 김민철 팀장(044-390-0230), 정민규 책임(0231)

## 중기부 R&D 기획의 나침반, R&D PM제도 1주년

- 중소벤처기업부 ·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중소기업 R&D PM 간담회 개최 -

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원장 이재홍, 이하 'TIPA')은 8월 23일(월) TIPA 세종 본원에서 중소기업 R&D PM(Project Manager) 간담회를 개최했다.

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R&D PM제도 도입 1주년을 맞아,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,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이 참석하였다.

중소기업 R&D PM제도는 중소기업 R&D 기획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제도로 2020년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. 현재 중소기업 R&D PM은 총 6명으로, 6대 기술분야\*별로 한 명씩 담당하고 있다.

\* 기술분야 : 혁신서비스, 전자부품·장비, 바이오헬스, 환경·에너지, 화학·전자소재, 그린뉴딜

지난 1년여 간 중소기업 R&D PM은 △예타사업과 같은 중장기 사업 기획, △단기 신규사업 기획, △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기획, △소재·부품·장비 과제 기획 및 검증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.

특히, ‘K-Bio Lab-Hub’ 구축 사업 등을 포함하여 현재 5개의 예타 사업을 기획 중에 있으며, 총 5개\*의 ‘22년 신규 사업을 기획하여 182.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

\* 총 18개 단기 신규 사업을 기획하여 그 중 5개 사업(182.5억) 과기부 심의 통과

또한 ‘21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\* 기획과정에 참여하여 기술·시장 정보 분석, 전략품목 검증, 동영상 강의 제작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.

\* 중소기업에 적합한 전략분야를 발굴·기획하여 R&D사업으로 연계·지원하는 사업

이 날 간담회에서는 이재홍 TIPA 원장의 “PM 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” 발표를 시작으로, PM 제도 개선 및 향후 기획 방향이 논의됐다.

PM들은 1년간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며 민간에서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R&D 사업을 기획하는 데에 보람을 느꼈다고 답하였다.

다만 현행 6대 분야만으로 다양한 기술 분야의 업무대응이 어려우며, 최대 3년의 임용기간으로는 본격적 업무수행을 위한 적응 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. 또한, 중기부-TIPA-PM그룹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.

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“PM이 민간에서의 경험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, 체계적으로 제도 개선점을 보완하여 중소기업 R&D 발전에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밝혔다.

이재홍 TIPA 원장은 “PM 인원 확충, 협업체계 강화 등을 통해 PM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, 보다 전문적인 기획을 통해 R&D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